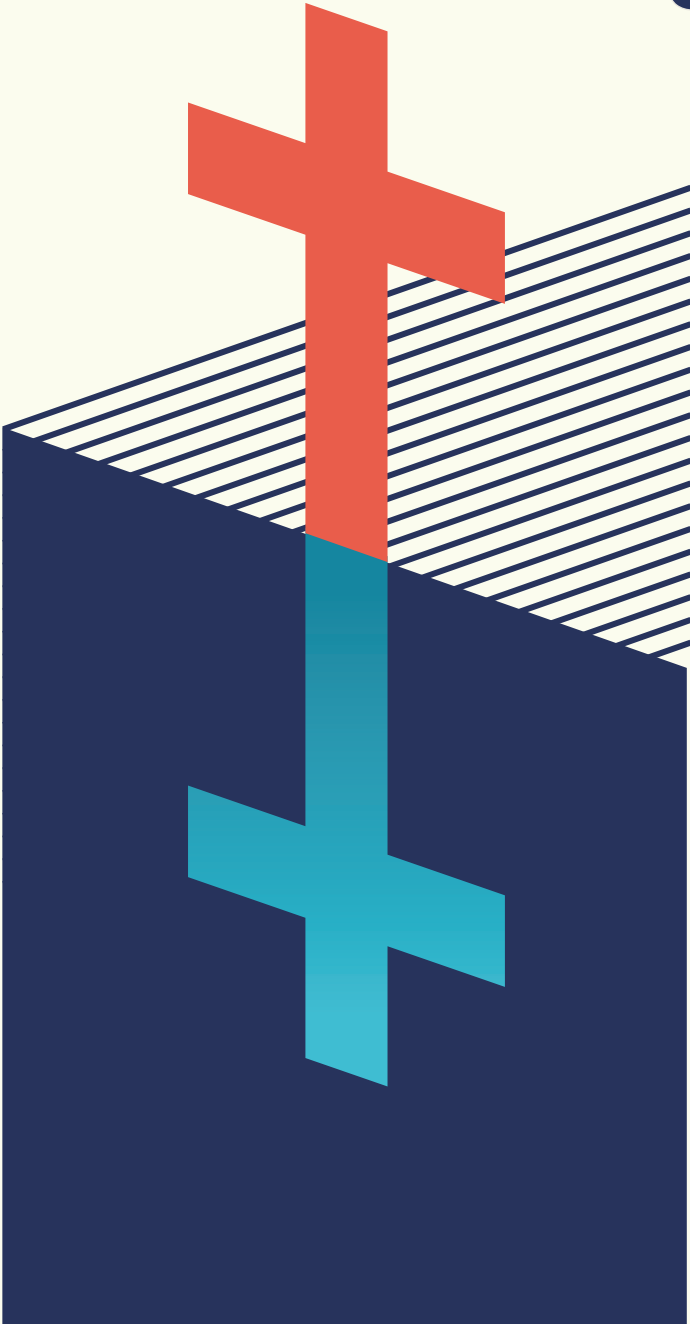


2024년
3월 17일

로마서 강해
갈릴리 공과



셀원들을 환영 - 얼음깨기(Ice-breaking)

1.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봄꽃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하루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 찬양 - 나 같은 죄인 살리신(305장(통405))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하리라

| 대표기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었는가? (롬 9:6-13)

1.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다

롬 9: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지난 주 우리는 바울의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바울의 근심이 그렇게도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을 주셨잖아!”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배교한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일까?”

이 문제는 바울의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소망이 되어주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랜 성찰과 묵상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기되지도 않았고 폐기될 수도 없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넘어졌다!> 이 두 명제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관통하는 놀라운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가신다는 뜻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참된 이스라엘이 있다

-참 자녀와 참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다.

점검 질문

1.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란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이삭과 이스마엘

롬 9:7-9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바울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입니다. (창 12:3, 창 17:7-8)

창 17:7-8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며 온 땅에 번성하리라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사라가 불임일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성취합니다.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갈 4:28-29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후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가 그의 자녀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창 17:18-19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엄마는 유대인이고 이스마엘의 엄마는 애굽 이방인이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조건을 뛰어 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을 뛰어 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한 인간의 선과 악의 행위를 뛰어 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과 자격에 관계없이 그 분의 마음과 뜻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신적 사랑과 은총의 발현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참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점검 질문

1.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 야곱과 에서

롬 9:10-13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조건의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도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직 태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태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물론 태어난 이후 삶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면 약삭빠르고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야곱은 차남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장남입니다. 양보심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만일 혈통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는 선택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행위가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선택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사랑과 은총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

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 받은 것은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 받은 것은 우리 민족이 잘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고 짓밟히던 그 때에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 때문입니다.

롬 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저주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미리 사랑하고 에서를 미리 미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를 지옥에 보낼 것을 결정해 버릴 수 있는가요?

말 1:2-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 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신학자들은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적 용어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신학적 용어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미워했다는 말은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선택과 유기, 예정과 예지예정이라는 교리가 여기에서 치열하게 마주칩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누군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이는 천국에, 어떤 이는 지옥에 보내기로 미리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지옥에 가도록 운명을 결정짓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 3:16)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교리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하염없는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누구에게는 바람도 주시고 풍랑도 허용하십니다. 누군가는 시냇가에 심어 놓으셔서 풍성한 시냇물을 마시도록 허용하기도 하시지만 누군가는 황량한 들판에 심겨 놓으셔서 저 뜨거운 태양빛과 거센 질풍노도를 온 몸으로 맞이하도록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선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지만 누구에게는 악이 개입되도록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은총의 양면성은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민족과 저 민족에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 개인 안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수도 있고 때로 고난의 여정이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늘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떠난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을 갈라치기 하거나 심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은총을 베푸실 때는 당연히 구원의 축복으로 안내하십니다. 그 분의 손을 거두시고 악을 허용하실 때에도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욥입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잠시 그에게 악과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부재의 시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옴은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악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둘째, 가롯 유다입니다.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재정을 관리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악이 그의 인생 속에 찾아 옵니다. 가롯 유다는 주님의 손을 잡는 대신 자기에게 찾아온 악을 열른 붙잡습니다. 그 결과 자기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선한 은총을 참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쫓기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길에 고난과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허용하셨다는 것이 그를 심판과 멸망으로 결정지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 에서는 스스로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비하게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선택 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의 손을 붙잡으면 그의 인생은 절망과 어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로 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원액이 흐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악이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믿음을 선택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창조의 원형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엠펙 1:4-5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선택은 참 이스라엘! 참 신자를 통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창조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2024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쓰임받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파선합니다.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한 이 사람! 오두막을 짓고 장기전에 돌입합니다. 배가 지날지 라면 소리를 지르며 살려 달라 하지만 번번히 지나칩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오두막에 불이 붙고 맙니다. 그래도 무인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마지막 존재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앞에서 그대로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배 한 척이 무인도에 다가온 것입니다.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연기로 구조신호를 보낸 줄 알고 왔습니다" 오두막에 불이 붙은 것은 분명 최악의 재난이었지만 그 연기 때문에 무인도에 홀로 있던 이 사람! 구출 받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평안하게 선택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에서와 같이 유기! 즉 악의 간섭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점검 질문

1.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적용 질문

1. 각자에게 처한 고난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2.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잘 작동되고 있었는지 묵상해보고 그렇지 못했던 상황을 돌이켜봅시다

| 공동체 기도

1. 3월부터 시작되는 사역들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부흥이 있게 하소서.
2.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3.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조옴김 김주평

21 

NOTE.

NOTE.

